

속담 배우기

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

속담의 뜻

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바로 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여버, 집 대문이 고장났는데 좀 고쳐줘요.

나: 응, 알았어.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고칠게.

가: **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**더니 도둑맞은 다음에 대문 고치면 뭐 해요?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70)

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

속담의 뜻

아예 없는 사람을 홍보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속뜻, 또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, 때마침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말.

1.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말
2.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민호가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서 졸업을 못 한대.

나: 그래? 처음 듣는 얘기인데.

가: 췌! 조용히 해. **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**더니 저기 오네.

다: 안녕? 다 여기 있었네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76)

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

속담의 뜻

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수미 엄마, 소식 들었어요?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대요.

나: 나도 소식 들었어요. 대형마트가 서로 물건을 할인해서 파니까 동네 슈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.

가: 맞아요. 그 옆 과일 가게도 문을 닫았다고 해요.

나: **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**고 대형마트 경쟁에 동네 가게들만 망했네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84)

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

속담의 뜻

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 질 수 있듯이, 손에 익숙한 일도 너무 자신만만하면 잘못을 저질러 수 있다는 말.

아무리 인숙하게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저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예요.

나: 와, 맛있어요. 훌륭해요.

가: 앗! 넘어졌어요. 저런 실수를 하다니...

나: **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**더니 세계 제일의 선수도 실수할 때가 있군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188)

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

속담의 뜻

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저 아이들 보세요. 어린이 아이인데도 예의가 바르네요.

나: **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**고 저 아니들 아버지가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래요.

가: 역시 그렇군요. 요즘 저 아이들만 보면 행복해져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02)

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

속담의 뜻

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결과가 생긴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너 수학 시험 잘 봤어?

나: 응. 한 개 틀렸어.

가: 와. 잘 봤네. 그런데 난 왜 수학 점수가 안 좋지?

나: **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**라는 말이 있잖아. 너는 수학 공부는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지.

작은 고추가 맵다

속담의 뜻

키가 작거나 어린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나 어른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지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?

나: 네, 봤어요. 한국 팀이 우승을 했지요?

가: 상대팀 선수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던데 우리 선수들 대단해요.

나: **작은 고추가 맵다**는 말이 있잖아요. 한국 선수들이 키는 작아도 한 번 하면 끝가지 하거든요.